

주목! 이사람



박대선 농림광주본부장은 31일 오전 8시 30분 본부장실서 '지역본부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한다.

'드림클래스 여름캠프' 개최 삼성전자, '섬' 중학생 대상

삼성전자는 도서·벽지의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삼성드림클래스 여름캠프'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읍·면·도서 지역의 849명 중학교에서 모집한 학생 1,000여명과 함께 군 부사관, 소방관, 국가유공자 자녀 547명도 참가한 이번 캠프는 지난 28일부터 3주간 전국 6개 대학에서 진행된다.

참가한 중학생들은 대학생 강사들과 합숙생활을 하면서 총 150시간 동안 영어와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수업은 학생 10명당 대학생 강사 3명이 소규모로 반을 이어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참여형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로 6년차를 맞은 캠프에는 과거 중학생으로 참가했던 18명이 대학생 강사 자격으로 다시 돌아와 '후배'를 가르쳤다.

지난 2013년 겨울캠프에 참가하고 올해 대학생이 된 최지윤(19·이화여대)씨는 "대학에 가면 꼭 삼성드림클래스 강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4년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참가 학생들은 또 공부 외에도 대학전공 박람회, 진로 특강, 국립발레단 자선 공연 관람 등의 기회도 갖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드림클래스 방학캠프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도서 벽지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시작했다"면서 "올해까지 중학생 6만3,000여명, 대학생 1만7,000여명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초대형 LPG운반선 수주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세계적 에너지기업 비틀(VITOL)사로부터 초대형 LPG(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건조 계약을 따냈다.

30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번 수주 계약으로 현대중공업은 8만4,000m급 LPG운반선 2,000을 우선 만들어 2019년 상반기까지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향후 옵션 형식으로 추가될 일까지 포함하면 수주 규모는 최대 8척, 6억달러(약 6,7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 LPG운반선은 연료 절감형 선형과 평형수 처리장치, 황산화물 규제 대응 기술 등이 적용되는 친환경 선박이라는 게 현대중공업의 설명이다.

비틀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LPG운반선을 발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대중공업의 브랜드 가치와 기술력, 재무 건전성 등을 높이 평가해 처음 발주하는 LPG 운반선을 현대중공업에 맡겼다"고 밝혔다.

로또(765회)

Table with 2 columns: Rank (등위) and Amount (당첨금액). Shows 1st prize of 1,109,214,250 won and 2nd prize of 51,352,512 won.

연금복권(317회)

Table with 2 columns: Rank (등위) and Amount (당첨번호). Shows 1st prize of 500 million won and 2nd prize of 324,257 million won.

삼성전자, 에어컨 판매 100만대 돌파

광주생산 '무풍에어컨' 국민에어컨 자리매김 인공기능 호평...벽걸이 출시로 선택 폭 넓혀

삼성전자가 '무풍에어컨' 인기에 힘입어 올해 에어컨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다. '바람 없이 시원한 냉방'이라는 콘셉트가 소비자 니즈에 충족, 무풍에어컨이 국민에어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올해 국내 시장에서 가정용 에어컨 누적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7년 1월~7월21일까지의 실제 판매 실적으로 업계에서는 전례가 없는 판매량 달성이라는 설명이다.

기록적인 판매량 달성 배경에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무더위가 빨리 시작되는 등 계절적 요인 뿐만 아니라 혁신 가전으로 꼽히는 '무풍에어컨'의 인기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무풍에어컨은 삼성전자 국내 에어컨 판매량의 약 60%, 스탠드형 부문에서는 약 70%를 차지하며 지난해 대비 4배 가까운 성장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풍에어컨은 '바람 없이 시원한 냉방'

이라는 콘셉트를 구현한 제품으로 지난해 출시됐다. 에어컨에 프리미엄 스피커에 사용되는 메탈 본체와 13만5000개의 마이크로홀을 적용했으며 디자인 및 개발은 물론 급행과 생산 공정에 이르기까지 혁신기법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우리 모두의 에어컨'이라는 슬로건 아래 스탠드형을 못 잡는 남편과 찬바람을 싫어하는 아내의 여름나기 팁이지만 차가운 직바람에 민감해 에어컨을 제대로 못 쓰는 산모와 아기 등 일상생활 스토리를 활용한 제품 광고도 눈길을 끌었다.

올해 출시된 무풍에어컨 신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인공기능 기술을 접목한 점이 특징이다. 또 벽걸이형까지 출시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객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기술 혁신과 서비스 개발에 반영, 삼성 에어컨이 계속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삼성 디지털프라자에 방문한 고객들이 '무풍에어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자동차·타이어 점점 받고 떠나세요"

본격 휴가시즌...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무상점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불볕더위에 자동차로 에어컨을 틀고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동차 주요 부품과 타이어 등의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와 타이어 업체들은 휴가가 몰리는 7월말~8월 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무상점검 서비스 코너를 운영하며 고객들의 안전 운전을 돕는다.

◇현대·기아차

현대·기아차는 다음달 1일부터 4월까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서 임시 서비스 코너를 마련하고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양사는 장거리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사항인 냉각수, 브레이크, 배터리, 전구류,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하고 ▲오일류, 워셔액 보충 ▲외외 패 블레이드 무상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 4개 휴게소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하며, 현대차는 ▲여주휴게소(강릉 방향) ▲치악휴게소(부산 방향)에서 실시하고, 기아차는 ▲기흥휴게소(부산 방향) ▲군산휴게소(목포 방향) ▲치악휴게소(부산 방향)에서 서비스 코너를 운영한다.

양사는 기본 점검뿐만 아니라 치악휴게소와 여주휴게소에서 현대모비스와 함께 AVN(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 시스템 점검 및 내비게이션 무상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일 하루 동안에는 치악휴게소, 여주휴게소, 기흥휴게소 등 3개소에서 현대글로비스의 중고차 매입 서비스 "글로비스 오토벨"을 통해 보유 차량의 중고차 시세 정보를 알려주는 특별 코너도 진행한다.

특히 현대차는 여주휴게소에서 전기



현대·기아차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서 임시 서비스 코너를 마련하고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료 충전 서비스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현대·기아차는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사고발생 시 사고조치 및 견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편,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차량들은 지역 서비스센터 및 인근 서비스 협력사에 일고해 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시 차량 대여도 해준다.

◇타이어 업체

타이어 업체에서도 안전운전에 필수인 타이어 점검에 나선다. 타이어 업체들의 무상점검 서비스는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주관으로 진행돼 장착 타이어의 제조사와 상관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로타이어는 지난 28일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성 휴게소(목포 방향) ▲여주 휴게소(강릉 방향) ▲군산 휴게소(서울 방향) ▲함안 휴게소(순천 방향)에서 무상점검을 진행한다.

무상점검 코너 방문객에게는 금로타이어의 전문가들이 타이어 공기압 보충 및 마모 상태 점검, 위치 교환, 밸런스 점검, 펑크 수리, 워셔액 보충 등 각종 타이어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여름철 울바른 타이어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타이어는 같은기간 전국 5개 주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는 물론 차량 점검 서비스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서비스 코너는 ▲황성휴게소(강릉 방향) ▲송산휴게소(평택 방향) ▲필곡휴게소(부산 방향) ▲진영휴게소(순천 방향) ▲여산휴게소(순천 방향) 등 5곳에서 운영된다.

이곳을 방문하면 타이어 공기압, 마모 상태, 배터리 점검 및 워셔액 보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사를 방문한 운전자에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바른 타이어 사용 관리 요령과 고객 운전 습관별 맞춤형 타이어 고르는 방법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서미애 기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11명 탄생"

전남진흥원, 1인 미디어 양성과정 수료식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 이하 '진흥원')은 최근 목포 상그리 아비치호텔에서 '1인 미디어 영상콘텐츠 창작자 양성과정 수료식 및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1인 미디어 영상콘텐츠 창작자 양성과정' 교육은 영상콘텐츠 서비스 산업 확대에 따른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목포지청)과 목포시의 지원으로 개설됐다.

지난 6월 1일부터 목포 벤처지원센터에서 8주 160시간 과정으로 운영됐으며,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 15명의 교육생 중 11명이 수료했다.

이날 행사는 교육 수료생 및 강사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수료증 및 기념품 전달 ▲성과발표회(영상작품 시연) ▲

우수 교육생 선발 및 시상 ▲초청강연(MCN 산업 현황과 스타트업 사례 - 호남대학교 정연철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1인 미디어 영상콘텐츠 창작자 양성과정' 2차 교육은 오는 9월 개강을 앞두고 있으며, 8월 중에 교육생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생 대표 고영숙씨(58)는 "우리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촬영에서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문 편집까지 배울 수 있었던 매우 유익한 수업이었다"며 교육 소감을 밝혔다.

오창렬 진흥원장은 "교육을 통해 배출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스타디오를 마련하는 등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광민 기자

오늘부터 열대과일 불법반입 특별검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 증가로 열대과일 등 휴대 식품류 반입이 늘어나면서 해외 악성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주간 특별검역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 기간 광양이나 함안 등의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검역 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식품검역대상 물품에 대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한 사

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국인 거주지역 주변 시장 등에서 휴대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작년 여름 휴가철(8월) 인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해외여행객은 260만6천명으로 월평균 대비 16% 많았고, 휴대식품 검역 건수도 7천368건으로 7% 증가한 바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는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국내로 반입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광주조달청,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

광주지방조달청(청장 박정환)은 최근 담당관 소제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에서 전남 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 30여개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조달청의 올해 중점 추진업무 중 하나인 농공단지 입주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규정 개정 사항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조달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입주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판로 확보 방안이 논

의됐다. 나창도 전라남도 농공단지협의회장은 열악한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에 대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박정환 광주조달청장은 "입주기업 스스로 꾸준한 기술개발, 품질확보를 통해 기존의 농공단지 수의계약이라는 말을 깨고 나올 것이다"며 "광주조달청에서도 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빈주머니...여행도 외식도 안한다"

숙박·음식점 시장 최장기 마이너스 기록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되면서 숙박·음식점 시장의 부진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4.0%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지수다.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했다는 것은 매출이 계속해서 뒷걸음질 칠 정도로 얼얼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같은 달 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지난해 9월

(-1.6%)부터 10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0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생산이 이렇게 오랜 기간 연속으로 감소한 적은 없었다.

숙박·음식점업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5~11%대 성장을 거듭했고 2000년대 중후반에도 플러스 성장하는 때가 더 많았다.

그러나 2015년 6월~2016년 1월까지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고 이후 플러스,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며 작년 하반기부터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8~9월부터 감소세가 뚜렷했다.

음식점업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9월 -1.8%를 기록하고서 지난달 -3.9%까지 역시 10개월 연속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주점업 및 바알콜음료점 생산은 지난달 2.5% 감소, 작년 8월부터 폭역성장했고 숙박업 역시 지난해 9월(-0.1%) 마이너스 성장세로 내려앉은 뒤 지난달(-5.5%)까지 계속해서 줄었다.

숙박·음식점업은 대표적인 내수 밀접 업종이다.

주머니 사정이 악화해진 탓에 가계가 늘려 가지 않고 외식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집밥' 문화가 강화되는 것도 광범한 가계 사정과의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